

■ 世界發明史에 記錄된 ■

그것과

과학을
장려한
역사 속의
권력자들찰스 2세 · 에드워드 7세
· 나폴레옹 등

새삼스럽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과학자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인 대우도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요즘과는 달리 먼 옛날에는, 국왕이나 그밖의 권력을 행사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운 실정이었다.

그러면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역사 속의 권력자들은 누구 누구 일까?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2세. 그는 특히 과학에 많은 흥미를 가져 크롬웰혁명 이후 왕정에 복귀하자마자 왕립학회(Royal Society)의 후원자가 되었다.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개선 하기 위해 애쓰던 찰스 2세는 왕실의 실험실에서 하루를 꼬박 보내는 일이 많았다.

국왕이 것처럼 자연과학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사람들의 대화에는 자연히 과학적인 얘기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 귀부인들사이에도 과학적 상식들에 대한 관심이 유행처럼 번졌다.

또 당시의 왕립학회 회원 가운데는 찰스 1세인 조카였던 루퍼트 왕자가 있었다. 그는 세계의 왕족 과학자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이처럼 유명하게 된 것은 화약에 관한 연구업적 때문이었는데, 루퍼트 왕자가 만든 화약은 당시 사용되던 화약보다 10배나 더 강한 것이었다. 루퍼트 왕자는 그밖에도 광산이나 물 속에서 암석을 폭파하는 방법, 총포의 개량, 합금법, 흑연을 녹이는 법 등 수많은 과학적 업적을 남겼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도 일찍부터 과학에 눈을 뜬 사람이었다. 그가 황태자였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에드워드 7세는 플레이 페어 박사의 화학 강의를 듣고 있었다.

“알제리의 마술사들이 뜨거운 철을 몸에 대도 화상을 입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꺼낸 페어 박사의 책상 한 구석에는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납이 있었다.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녹은 금속이라면 화 입장을 이해시키려

그들은 누구인가

했다.

상을 입지 않고 몸을 뒤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페어의 그같은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페어는 황태자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황태자님, 만일 황태자까지 과학을 믿으신다면 오른손을 이 냄비 속에 넣어보십시오.”

페어가 가리킨 냄비 속엔 이미 납이 끓어서 섭씨 1,500에서 1,700도의 온도로 녹아 있었다.

“그 녹아 있는 납을 손으로 떠서 찬물에 넣으십시오.”

“황태자는 곧 암모니아로 손의 기름기를 없앤 후 끓는 납속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납을 떠내었다. 학생들은 모두 놀라 감탄의 소리를 연발했다.

“황태자가 화상을 입지 않은 것은 수분이 납과 피부 사이에서 일종의 쿠션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도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인 나폴레옹. 그 역시 과학에 큰 흥미를 느껴 프랑스과학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자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나폴레옹은 과학자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데이비라는 사람이 전기를 이용해 금속나트륨을 얻었다는데, 우리는 어째서 그런 발견을 하지 못하오?”

나폴레옹이 큰 소리로 이같이 말하자 과학

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중소! 돈은 얼마든지 드리리다. 그러니 틀림없이 큰 불타전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뒤 큰 전지가 만들어졌고 나폴레옹은 신기한 듯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전지에서 연결되어 나온 전선의 끝을 입에 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폴레옹은 약간 움추린 자세로 전선의 끝을 살짝 입에 갖다댔다. 그 순간 온 몸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흘러 나폴레옹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의 전지사건 훨씬 전에는 베르톨레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로베스 피에르의 명령을 거절해 사형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피에르는 프랑스공화국의 독재자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모든 세력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일선 병사들에게 보내지는 술에 독이 들었다는 소문이었는데, 범인을 색출해 엄벌하겠다는 피에르의 말과 함께 온 프랑스를 휩쓸었다.

피에르는 그같은 자신의 음모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 유능한 과학자 베르톨레에게 술의 분석을 맡겼다. 물론 독이 없는 술을 독이 있다고 말하라는 명령과 함께였다. 그러나 베르톨레는 술에 결코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자신이 직접 그 술을 마셔보였다. 그는 이 일로 피에르의 미움을 사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그 무엇도 겁내지 않는 용기있는 인재라 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中>